

민주 '무당선대본' '굿힘당'...무속인 프레임 부각尹 맹공

윤핵관은 무당, 왕윤핵관 김건희 최순실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 선거기구에 무당 임명 '사머니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무당선대본'이라고 국민 의힘 윤선열 대선 후보를 난타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 점과 윤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이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전날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며 '무속인 비선 실세' 프레임에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다"며 "윤 후보의 무당선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속인'으로 보도된 전모씨와 관련해, "주요 인물은 전씨의 면접을 보고난 뒤 합류가 결정된다는 캠프 관계자 발언이 보도된 후 많은 국민이 대경실색하고 있다. 최순실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사머니즘 송배"라며 "국민은 주술과 무당에 흘러 국사를 결정하는 나약한 지도자에게 한 표도 (주기) 아끼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 또한 윤 후보의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폐지하는 게 아니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냐는 시중의 이야기가 가법게 들리지 않는다"며 "이를 통제하지 못한 국민의힘도 주술 의힘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윤 원내대표가) 국민의힘도 '굿힘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김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개인적 취향이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국가 운영을 무속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고 비교했다.

정성호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윤 후보) 캠프 내에도 무속인이 주축이된 사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녹취록에서 공개된 김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투와 관련해서도 '결국 돈 주면 해결되는 거고 돈 안 주니까 해결 안 됐던 거다' 이런 식으로 (김씨가) 말씀하셨는데 금전만능주의적 사고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결국 권력만능주의"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위치가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일자리 대전환 6대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시장, 7일째 사고 현장에서 숙식하며 진두지휘

아이파크 실종자 수색 주력 정 회장으로부터 책임 약속 받아

"시민 다섯 명이 아직도 차가운 콘크리트더미 속에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편히 쉬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18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현장에서 만난 이용섭 광주시장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이 엄동설한에 가족을 위해 일하다 실종된 시민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실종시민에 대한 수색작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절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일주일째 하루 24시간 붕괴 사고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수색·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어제(17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퇴 발표 직후 만나고 싶다고 해 사고현장으로 직접 오라고 해 만났고, 앞으로 현장에 함께 머물면서 산적한 후속조치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정 회장으로부터 사고현장에 머물면서, 회사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부터 보상 등 모든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다만 사고현장이 워낙 위험하고 난해하다는 점을 들어 실종자 구조·수색작업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내 구조전문가들이 모두 현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크레인 붕괴 위험 등으로 구조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조견조차 들어가기 힘든 곳이 많다"라며 어려운 현 구조 여건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20명)이 지난 17일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현장은 처음이라고 했다"면서 "타워크레인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잔재물도 수시로 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르면 19일 다시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향후 수색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매일 오전 8시 30분 사고현장에서 시청 관련 실·국장을 비롯한 청와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본부, 서구청, 현대산업개발 등 관련 대표들과 일일대책회의를 갖고 사고 수습 방안 논의는 물론 강도 높은 건설현장 개혁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이 시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 "단기적으론 현 붕

괴사고를 수습하는데 집중하고, 장기적으론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건설사고 없는 광주를 만드는 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수습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전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정의당 광주시당 촉구

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정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일주일일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규모와 내용이 역대 어느 사고보다도 크고 중한데, 정부는 지금 개별 부처별 대응을 하고 광주시에 사고 수습을 일임한 모양새"라면서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 중장기 사고 수습 시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안전대책본부 구성이 필요하고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사고를 초래한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 말소도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

70 광주일보 70년
열독률 호남 1위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